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사랑의 사도 요한

(마 10:2-4)

1. 요한이란 이름의 뜻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God is gracious’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2,3서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요 13:23)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 요한의 가족 배경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마리아의 친자매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 혹은 ‘사랑의 성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는 대로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입니다.

3. 요한의 기질과 성격

요한은 한편으로 매우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래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또한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격적, 기질적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4. 요한의 인격적인 변화

요한의 성격과 기질의 변화를 일컬어 존 맥 아더 목사님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불같은 그의 성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그는 야망과 겸손의 균형을 이루었고,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이루며 점차적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5. 요한의 사역과 최후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에게 사랑이 많았기 때문이요 동시에 사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신약시대 초반과 중반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예베소로 사역지를 옮겼다가 마지막에 밋모섬으로 귀양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다락방 모임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Apostle John of Love

(Matt. 10:2-4)

1. The Meaning of John

The name of John means ‘God is gracious’. John lived his life receiving God’s love fully like his name. John is the author of the Gospel of John, 1 John, 2 John, and 3 John. John, in the Gospel of John, described himself as one of Jesus’ disciples, namely, ‘the disciple whom He loved’ (Jn. 13:23).

2. The background of John’s family

John’s father was Zebedee, his mother Salome Mary’s sister. She loved Jesus as much as she could until his death. Just like John was nicknamed the Apostle of love, or the saint of love, he put his love into practice.

3. John’s temperament and character

John was very impetuous and possessed a character like a fire. Since he was nicknamed ‘boanerge’, in other words, the son of thunder, because of his hot-blooded character, he was an apostle reproached a lot of time by Jesus.

However, even though he had a lot of problem in his character and temperament, he had a deep experience with Jesus.

4. John’s moral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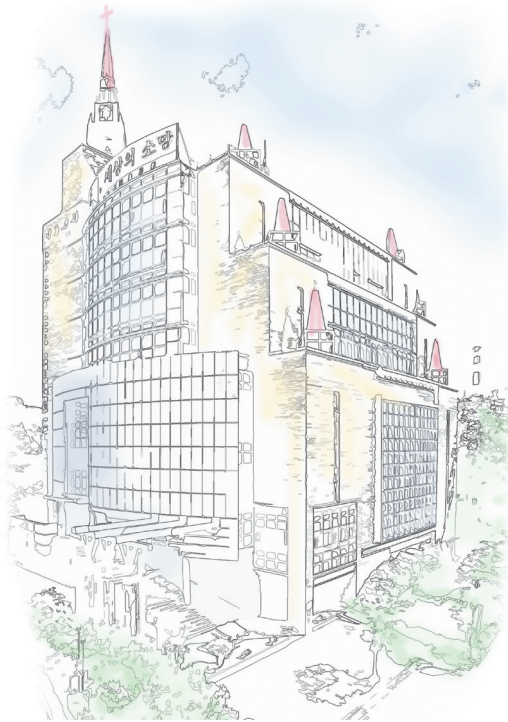
The pastor John MacArthur described ‘the change of John’s character and temperament’ as ‘the itinerary going to visit a balance’. By accomplishing a balance between the truth and love, John with hot-blooded character was taught by Jesus and he became a changed man who could be accepted by many people. Moreover, he accomplished a balance between ambition and modesty, and between glory and suffering, and gradually changed into an Apostle of love.

5. John’s mission and his end

John lived the longest among Jesus disciples. Perhaps, it is because he was full of love, at the same time he thoroughly had a sense of his mission. He worked very actively at the beginning and middle period of the New Testament. At the end he exiled to Patmos island, and wrote Revelation.

My beloved Christians,

Jesus is pleased with when we love each other, and we will be joyful and happy when we love each other. Through the fellowship of your life and small group meetings I sincerely pray that the wonderful mission of love will be achie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9월 12일(목) 오전10시 ~13일(금) 오후7시

2013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가 금주 12일(목)에 열린다.

이번 바자의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이며 목표로는 1.생명의 우물파기 2.미자립교회 돕기 3.불우이웃 돕기 4.탈북난민 돕기 5.아가페타운 지원으로 정하였다.

지난 7월21일 주일 아침 생명의 우물파기지원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은혜로운 바자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으며 1, 2, 8층에 우물형상을 준비하고 사랑의 우물파기 모금을 하였다. 바자수익금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소외된 장애인, 노약자)과 탈북자 등을 돕는 일에 사용 할 것이다.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에서 열리는 바자는 주로 성도들의 기증품 위주로 판매되며 추석 선물 등을 위하여 농수산특산품을 준비할 예정이므로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번 바자를 위해 교구에서는 미리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바자는 12일(목)오전10시에 개장하여 13일(금) 오후7시에 폐장한다.

2013 사명자 대회 준비 시작하다

10월 6일(주)~11월 24일(주)

2013 사명자 대회 준비가 시작 되었다.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2013 사명자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 대회는 교회 설립 50일전 기도로 사명

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매년 교회설립기념주일 전 50일간 진행해 왔다. 금년 사명자대회는 10월 6일(주)부터 11월 24일(주)까지이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대 회 장 : 박노철 목사 • 지도교역자 : 장석남 목사 • 부 장 : 오정수 장로
- 차 장 : 주동재 김상태
- 진 행 : 백승갑 / 김규원 이현수 박동혁 박동울 • 흥 보 : 김수원 / 유은경 오주명
- 전 도 : 신봉하 / 교구간사 신선주 이민호
- 기 도 : 김금준 / 손종근 박종만 허인영 서은석 김형상 김장섭 최은석 이현정 이미송2 김미성 최금숙 최춘숙
- 교 육 : 박광식 / 송인수 이준호 서경학 박형수 차영도 최차순 송인권 김도훈
- 안 내 : 윤동수 / 안내위원 • 재 정 : 홍승진
- 봉 사 : 허 숙 / 1권사회, 피택권사 • 차 량 : 김광룡 / 차량부, 피택집사

전산운영지원팀 신설

교회관리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멀티미디어부 산하에

서울교회는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교회관리프로그램을 변경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 중인 바, 이 새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체계적 기획, 개발을 목적으로 멀티미디어부(부장 오정수 장로) 산하에 전산운영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자 한다. 그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실무위원
- 자문위원 : 이준호, 차도훈, 한상준, 홍순석
- 운영위원 및 담당부서
- 강재훈(기획, 예배) 오승민(찬양) 김영희(교육 1, 2국) 윤종덕(교육 3, 4, 5국) 김승록 (교구) 오윤걸(전도) 장윤기 (선교) 최광혁 (구제, 재정, 관리, 건축, 스테반회, 권사회, 제직회) 최원석(기타 당회소속기관, 각종 연건행사) 최영철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이준태(개발회사 업무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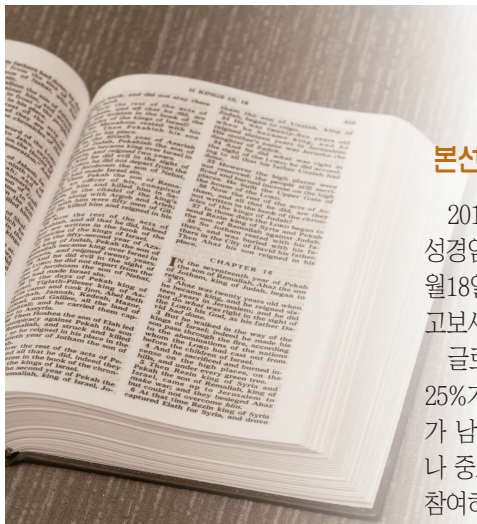
- 팀 장 : 김금준
- 차 장 : 이희국 • 서 기 : 최광혁

2013년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3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 본선 : 10월18일(금) 오후7시, 602호 / 야고보서 전장

2013년 성경암송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10월13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거쳐 10월18일(금) 오후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암송범위는 야고보서 1-5장(전장)이다.

글로 읽는 것은 15%가 기억에 남고, 시청각으로 보는 것은 25%가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40%가 남고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성경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1)

(문 100) 랍셋이 출애굽 당시 바로였다면 열왕기상 6:1은 역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요?

(답)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왕상6:1) 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970 B.C에 시작되었으므로 그의 통치4년은 966 B.C를 말한 것입니다. 966년에서 480년 전은 1446년 또는 1445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 사건은 왕상6:1이 정확하다면 1447년에서 1442년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기는 Amenhotep2세의 통치 기간(1447-1421)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랍셋2세의 통치기간(1300-1234) 초기 즉 1290년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1) 출1:11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라암셋 도시건설에서 부역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라암셋의 이름이 이미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야곱이 애굽에 이주했을 시 Hyksos왕조 시대였음을 요세푸스가 밝히고 있습니다.(1750년)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로부터 430년간 애굽에 거주했습니다.(출12:40) 1750년부터 430년을 빼면 1320년이 됩니다. 이때로 18왕조 Amenhotep2세 시기보다는 19왕조 Ramses2세에 더 가깝습니다.

3) 고고학자 발표 결과 Lachish, Debir, Hazor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의 파괴가 14세기 초보다는 13세기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점령한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이 받아들인다면 열왕기상6:1은 역사성이 불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1290년경 일어났다면 솔로몬의 성전건축은 480년보다는 324년이 지났을 때 시작할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R.K. Harrison은 480년을 인위적 숫자 즉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실제 한 세대는 30년이지만)해서 완전수 12세대를 곱한 480년을 말한 것이라 하나 근거가 너무 빈약한 이론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1290년이 출애굽 연도로 정확하다면 왕상6:1은 부정확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1445년 출애굽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출1:1에 라암셋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역한 때 모세 나이 40이었다면 출애굽한 시기엔 모세 나이 80이 넘는 때였습니다. 랍셋이 1300년에 통치를 시작한 후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면 출1:11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통 당할 때와는 시간적 거리가 크게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애굽이주와 출애굽 사건 사이에 430년이 될 수 없다는 이론에서 Hykor(1750)시대와 1445년 출애굽 시기가 정확하다면 이것도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70인역(LXX)은 왕상6:1의 480년 대신 440년이라 했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592년이라 했습니다. 사사기의 연대로는 410년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65년 사울과 다윗의 시대 60년 솔로몬 통치 4년을 합하면 539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대기적 계산법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상6:1은 전체의 헛수뿐 아니라 왕의 통치기간의 말수까지 말함으로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모호하다 해도 열왕기상6:1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스테반회 봉사를 기다립니다

9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바자행사를 위한 판매대 및 텐트 설치 작업을 시작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바자 준비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



노승성 장로
(사랑의 바자 준비위원장)

도무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어느 순간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 가을을 실감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놀랍기만 합니다.

서울교회는 바자가 가을의 시작을 알립니다. 1992년 시작된 바자는 1997년 IMF 구제금융 한파가 왔을 때도 어김없이 열려 20년 넘게 개최 되어 올해로 23회차가 되며, 그러면서 우리교회만의 바자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자 때마다 거둔 수익금은 농촌교회 건축 헌금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로, 탈북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일에 쓰였고 한편으론 예배당과 아가페타운 건축에도 귀하니 귀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랑의 바자 수익금은 생명의 우물 파기, 미자립교회 돕기, 불우이웃 돕기, 탈북난민 돕기, 장애자를 위한 호산나 대학이 있는 아가페타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1,3,5운동(1 성도가, 3 가지 이상 품목을 구매하고, 5 사람 이상에게 바자 홍보하기)을 전개하며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바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는 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바자 참여는 우리교회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와 그 의미가 닿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바자에서 많이 구매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은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디 이번 '2013 사랑의 바자'가 서울교회 잔치의 한마당이 되도록 온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모두들 이번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제14회 찬송가세미나

예배 음악의 개혁이 있어야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는 지난 5일(목) 오후 2시 여전도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아울러 제 14회 찬송가세미나를 열었다. 우리교회 찬양위원장인 박정선 장로가 공동회장으로 섬기는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는 지난 2008년 창립하여 그간 한국교회에 바른 찬송 보급에 앞장서며 찬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날 세미나는 이종운 원로 목사님이 '예배음악의 개혁'이라는 제하의 주제 강의를 했다. 다음은 강의안의 요약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개혁, 생활개혁뿐 아니라 예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생활, 예배는 성경적인지를 물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하면서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 음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찬송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

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찬송은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며 중생한 영이 성령 충만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찬송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대예배에 첨가된 비성경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성경적 예배요소를 변경시킨 것을 개혁해야 한다. 예배의 초점이 인간의 필요와 흥미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 노래방 수준만도 못한 현대 예배 음악을 개혁해야 한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The most momentous), 가장 긴급한 것(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 것(The most glorious)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예배 갱신, 특히 찬양개혁을 교회 갱신의 우선순위에 놓고 성경이 명한 바른예배, 바른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지난 2일(월) 제4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개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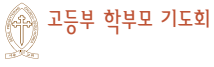


주일 2부 예배 헌금위원들(지도 장석남 목사, 예배위원장 서문석 장로, 부장 정양일 집사) 그간 모은 회비 2백만원을 '사랑의 바자 생명의 우물파기'에 쾌척했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관규 장로)에서는 식당과 지하 주차장에서 봉사할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 문의 : 김광룡 집사 010-9432-8469



자녀를 위한 기도



박예정 집사
(고등부 교사)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중보와 다음세대 주역인 서울교회 교육부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기도제목을 붙잡고 뜨겁게 중보하며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에 고등부에서는 시간을 정한 후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자녀가 성장하여 고등부를 졸업한 부모님 중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수능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수능기도회에 봉사할 예정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주일에는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주중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학부모기도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과 중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부에 출석하지 않아 망설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오늘 고등부에서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어 은혜가운데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기도회가 궁금하신 분은 고등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수능기도회에 봉사를 예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주일에는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주중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학부모기도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과 중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부에 출석하지 않아 망설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오늘 고등부에서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어 은혜가운데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기도회가 궁금하신 분은 고등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수) Save N. K 주최 통일대비 남북한 교육전문가 원탁회의 개최사를 한다. WCC 한국준비위 상임위원회 모임에 참석한다. 13일(금) 한국기독교학술원 제9회 학술상후보 추천 및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인전 : 15교구 전광영 집사 서울대학교 미술관 초대 개인전 9월3일~12월29일

■ 승진 : 3교구 김병하 성도 서울시 행정2부시장(차관급)

■ 주간식당봉사 : 빌립교회(9.8) 안드레교회(9.15)

■ 금주의 식사 : 이영인 권사 김대웅 집사 가정
이영옥 권사 노승성 장로 가정
이성우 집사 홍성혜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교회 사랑으로 시원했던 여름!

살롬, 박노철 담임목사님!!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 이선구 목사입니다.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저희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 지원센터에 2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로부터 '서울교회는 교회 헌금의 60% 이상을 구제와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큰 감동을 받아 서울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보던 중 강남구청을 통해 서울교회를 소개받았고, 오정수 장로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장로님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희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며, 좌절과 원망 속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과 쪽방촌 노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행복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위한 건물에는 500인 분을 대접할 수 있는 대형 국솥과 밥솥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건물 내부가 뜨거운 찜질방이나 다름없는 환경이 됩니다.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지난 해 행주대교 화재 사건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못한 탓에 마음 한 켠이 늘 불편했었습니다.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곳에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주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선구 목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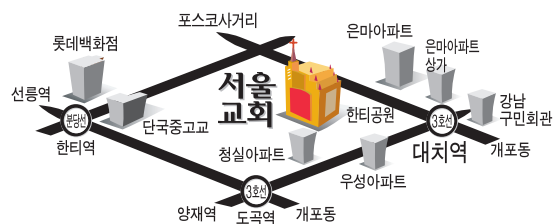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9월 12일(목)과 13일(금)에 있는 사랑의 바자에 모든 성도님들과 많은 이웃들이 동참하여 선한 목적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 새롭게 개강한 목회자신학세미나, 열린프로그램, 그리고 꿈나무영어성품스쿨을 통해 섬김과 성장의 역사가 계속 되도록
- 9월 9일(월)~12일(목)까지 열리는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총회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 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젊은이 예배 | 오후 1시 30분 |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 당 II, III 층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